



‘광주 양궁’을 빛낸 스타들과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31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가 1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등부·대학부·일반부 통합 올림파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의 8강 진출자들. /광주매일신문 DB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종별대회 오늘 개막

초·중·고·대·실업팀 등 17개 팀 200여명 참가

양궁 저변 확대·우수선수 발굴 산실 자리매김

한국 양궁의 중심 ‘광주 양궁’을 빛낸 스타들과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인다.

빛고를 양궁 꿈나무를 조기 발굴·육성하고 양궁 저변확대를 위한 제31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가 16일 오전 9시30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양궁협회(회장 김광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성진·삼정·영주·문산·두암·유촌초 등 남녀 초등부 6개 팀, 동명·운리·광주체육중(남여) 등 중등

부 4개팀, 고등부 광주제고(남여), 대학부 조선대(남)·광주여대, 실업팀 광주시체육회(남)·광주시청(여) 등 선수·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에서는 올해 첫 전국대회인 제53회 전국 남녀종별선수권대회에서 고등부 6관왕을 차지한 ‘여고생 국가대표’ 안산(광주제고)이 참가 선수들을 대표해 선수 선서를 한다.

지난 1988년 광주시양궁협회가 창립된 이후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로 31년의 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양궁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2012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광주시청)를 비롯해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여대 졸업·순천시청), 최민선(광주시청), 안산(광주제고) 등이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용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현정도 광주 출신으로 광주시양궁협회장기가 배출한 스타들이다.

특히 오는 25-28일 전북 익산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는 소년체제에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의

마지막 실전 경기력을 점검하고, 올해 첫 실시한 합동훈련의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은 “매년 싱그러운 봄에 개최되는 이 대회는 광주 양궁역사와 함께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양궁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며 “꿈나무 선수들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양궁 메카로서의 광주를 빛낸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소년체제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해 실력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광주 양궁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과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중기자

전남도·경북도, 상주서 ‘형제의 정’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15-17일 친선·우호 교류
게이트볼·배드민턴 등 5종목 70명…문화 탐방도

전남도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가 올해도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17일까지 경북 상주시 일원에서 경북도체육회 초청으로 전남-경북간의 다섯 번째 생활체육 우호교류에 참가한다.

전남체육회 우호교류단은 박철수 상임부회장을 단장으로 5개 종목(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배드민턴·정구·탁구) 70명으로 구성됐다.

교류단은 첫날인 15일에는 ‘영남의 젓줄’ 낙동강 1경 경천대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도남서원, 낙동강생태박물관 등을 탐방하고 생활체육 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또 16일에는 상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19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과 더불어 각 종목별로 경북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교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뜨거운 형제의 정을 나누며 종목별 경기에 참여하고, 상주국제승마장 체육시설탐방을 끝으로 3일간 각별해졌던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된다. 특히 전라남도체육회는 다음달 4일부터 영암군에서 열릴 예정인 전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을 전후해 2박3일 일정으로 경북도 생활체육 동호인 70명을 초청,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과 양 지역간 화합과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도와 경북도가 5회째 교류를 통해 동호인들간의 만남이 더욱 돈독해진 형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양 도민이 전통문화 특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2019 전남·경북 생활체육교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이용대-최솔규, 남자복식 우승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

배드민턴 이용대-최솔규(요넥스)가 2019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용대-최솔규는 15일 강진군 강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일반부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김사랑-정의석(밀양시청)을 2-0(21-18 21-10)으로 꺾었다.

최솔규는 대학 졸업 후 2018년 입단한 요넥스 소속으로 처음 실업 무대 우승을 거뒀다. 이용대는 2017년 가을철종별선수권 이후 처음 정상에 올랐다.

이용대는 “몸 상태는 좋았는데 오랜 기간 우승이 없었다. 우승해서 기쁘고, 최솔규가 후원에서 강한 스매시를 하고 수비에서도 한층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솔규는 “이번 대회 우승은 남다른 첫 실업대회 우승이고, 롤 모델인 용대 형과 함께 우승해서 더 기분이 좋다. 용대 형을 믿고 제 플레이에 집중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남자단식은 허광희(국군체육부대)가

이동근(MG새마을금고)을 2-0(21-15 21-17)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단식은 이세연(KGC인삼공사)이 김나영(삼성전기)을 2-1(21-11 8-21 21-17)로 꺾고 우승했다.

여자복식은 김혜정-백하나(MG새마을금고)가 김하나-이유림(삼성전기)을 2-1(21-14 15-21 21-14)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혼합복식은 고성현-엄혜원(김천시청)이 강지욱-백하나(MG새마을금고)를 2-1(21-19 12-21 21-7)로 제치고 우승했다.

단체전에서는 삼성전기가 MG새마을금고를 제압하고 남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 2018년을 이어 여름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MG새마을금고를 꺾고 우승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5년부터 매해 이 대회 결승에 올랐으나 이번이 준우승에 그쳤으나 올해 정상 자리에 성공했다. 봄철 대회를 이어서는 2연속 우승이다.

/연합뉴스

LPGA 김인경이 남자 대회에?…US오픈 예선 참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고 싶어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7승을 올린 김인경(31·사진)이 남자 대회에 도전장을 내 화제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워크는 김인경이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클래식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US오픈 지역 예선에 출전했다고 보도했다.

81타를 쳐 합격선에 9타나 뒤져 낙방했지만, 김인경은 “합격을 바란 건 아니다.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고 싶었다”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김인경은 “남은 시즌을 대비해 연습 삼아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LPGA 투어는 최근 2주 동안 대회를 열지 않았다.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전장이 긴 코스에서 힘겨운 라운드를 마친 김인경은 “씨 잘 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면서도 “날씨가 너무 더워 즐겁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류현진이 NL 사이영상 탈 것”…MLB 설문조사 3위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투수의 최고 영예 사이영상 수상자 후보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MLB닷컴은 미국야구기자협회(BWAA) 회원들이 참여한 2019시즌 첫 사이영상 설문조사에서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3위를 차지했다고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류현진은 내셔널리그에서 45.6%의 지지를 받았다.

MLB닷컴은 류현진에 대해 “이 베테랑 투수는 시즌을 훌륭하게 출발하면서 스포츠 분야의 최고 복귀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어깨·팔꿈치 부상으로 2015-2016시즌 1경기만 뛰고 2017년에는 엉덩이·발 부상으로 2차례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올해 류현진은 8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72로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52%이닝 동안 스트라이크 54개를 잡으면서 볼넷은 3개만 내줬다. 특히 5월 들어 3경기에서는 1자책점만 내줬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설문조사 1위는 신시내티 레즈의 루이 카스티요(57.3%), 2위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루키 크리스 패택(56.1%)이다. 그러나 류현진(14표)과 패택(15표)은 카스티요(13표)보다 더 많은 ‘1순위’ 투표를 받았다.

/연합뉴스



강진군,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유치 확정

내년 10월20-23일…50개국 1천500명 참가 예정

강진군이 내년 10월20일 열리는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0년 10월20-23일 4일간 치러지는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는 스포츠 메카로 새롭게 급부상 중인 강진군 제1·2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가 승인해 2년 마다 개최되는 국제 대학생 역도 대회로 역도

단일 종목으로 남자 10체급, 여자 10체급으로 진행하며 세계 50개국, 500여명의 선수를 포함한 1천500여명의 임원진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다.

이번 선수권대회 유치의 성공은 전남도의 후원과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 이승욱 강진군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로 대한역도연맹과 지속적인 협조로 이룬 쾌거다.

앞으로 강진군은 대한역도연맹 등 각 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조직위원회와 사

무처를 구성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강진군만의 대표할 수 있는 대회 상징물 등을 개발·제작해 각종 국제대회 방문 홍보, 언론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강진군과 강진군체육회는 강진군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각급 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군 최초의 규모 있는 내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 각종 국제·전국대회를 개최

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 및 임원들이 최적의 환경 조건에서 훈련 성과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산배아체 골프앤리조트, 다산수련원, 성화대학 기숙사 등 숙박 및 음식업소의 위생상태, 친절 등을 관련 부서와 수시로 점검해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갈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개최로 스포츠 도시 강진을 세계 역도의 메카로 주목받게 하는 것을 비롯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 강진을 육성하겠다”며 “지속적인 대회 육성과 시설물 정비 등 시설 투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